

# 한국어교육에서 지역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 방안

— 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

차윤정(부산대)

---

## <차 례>

---

1. 머리말
  2. 지역사를 포함한 역사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유의점
  3. 지역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 수업 방안
  4. 맺음말
- 

【벼리】 본 연구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자료를 활용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부산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수모형과 15주의 교수계획,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수업의 예를 제시하였다. 체험 후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한 교육 방안에서는 부산의 아미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동화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읽기 전, 읽기, 읽기 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동화 내용을 한국,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읽기 후 활동에서는 한국과 부산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여 이해함으로써 상호문화 이해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역사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을 통합하는 교육 방안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

---

\* 본 연구는 2018학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입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제어 : 유학생, 한국, 지역, 역사문화, 교육 방안

## 1. 머리말

최근 K팝의 세계화와 함께 K드라마, K뷰티 등을 앞세우며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이에 따라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도 영향을 끼쳤다.<sup>1)</sup> 유학생의 증가는 한국어교육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교육 목적의 다양화에 따른 한국어교육의 세분화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의 다양화 등이 그러한 예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따라, 현재 많은 유학생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학들에 재학 중이다.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들은 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4년 이상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생활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서 4년 이상을 생활한다는 조건 때문에,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유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연구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2)</sup> 유학생 교육에 지역 사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연구로는 한국어교육에서 공간의 교육적 의미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로컬리티 개념을 적용하고 교수-학습의 예를 든 전은주(2013), 한국어교육에서 방언 교육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지역문화콘텐츠

---

1) 2018년도 출입국 외국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248,472명으로 2017년 입국한 212,295명보다 17.2% 증가하였다.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68/subview.do>

2) 다만 지역(지방) 소재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발간하는 한국어교재의 경우 이러한 인식을 담아 교재 내용 속에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수립을 주장한 장미영(2006),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습자들의 지역어 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 교육 방안을 제안한 우창현(2013), 조혜화, 조재형(2015), 차운정(2018), 문화체험과 읽기쓰기 통합교육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장소를 활용하고 있는 김용현, 이기영(2012)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유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생활문화 외에도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이 한국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을 통한 현장교육 역시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역사문화를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유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유학생들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분야의 역사문화 교육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교육 자체 내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 분야의 연구 흐름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국어교육 자체 내의 문제로는 역사문화 교육의 활성화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하위분야로서 역사분야에 관한 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으며, 최근 들어 그 필요성과 함께 교육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교육 방법 또한 주로 교재와 매스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문학을 이용한 한국 역사교육 등의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sup>3)</sup> 또한 역사문화 교육은 현장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 교육의 비활성화와 관련된 한국어교육의 외적 원인은 한국사 분

3) 강소영(2016)에서는 시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야의 연구 흐름과 관련된다. 역사 연구는 연구대상의 단위에 따라 크게 국가사 중심의 연구와 지방사(또는 지역사) 중심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 연구는 국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지방사, 지역사, 향토사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sup>4)</sup>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물들 중 일부는 지역의 역사를 담은 지역사 교과서들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이나 교과서들이 정규교육 현장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역사 연구와 교육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유학생들의 한국어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4년 이상을 생활해야 함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 역사문화 교육의 현재적 상황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생활해야 하는 유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한국어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문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관련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시켜 교육하고 역사문화와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지역사를 포함한 역사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유의점

### 2.1. 한국 및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과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는 P

4) 차철옥(2009), 「지방성 연구의 이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04.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학생들은 1학년 학생부터 4학년 학생<sup>5)</sup>까지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공 또한 인문, 사회,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아래와 같다.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

|       | 초급        | 중급         | 고급        |
|-------|-----------|------------|-----------|
| 총 31명 | 7명(22.6%) | 16명(51.6%) | 8명(25.8%) |

한국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은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배우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이 71%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별한 생각이 없다는 학생이 19.4%, 안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9.7%로 나타났다. 특별한 생각이 없다는 학생은 초급 1명, 중급 학생 5명이었고, 안 배우겠다는 학생은 중급 학생 2명, 고급 학생 1명이었다.

그리고 만약 한국문화 수업을 듣는다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느냐는 질문에 대해 생활문화를 배우고 싶다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예술문화 22.6%, 역사문화 19.4%, 전통문화 12.9%를 배우고 싶다는 순서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유학생들은 전통문화보다는 현대 한국의 생활문화에 훨씬 관심이 많고, 예술문화와 역사문화도 비슷하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까?

5) 조사 대상 학생들의 학년별 인원은 1학년 15명, 2학년 3명, 3학년 8명, 4학년 5명이다. 여기에서는 TOPIK 2급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을 모두 초급으로 다루었다. 유학생들의 경우, 전형 방법이 다양하여 학과에 따라서는 TOPIK 3급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언어교육원에서 일정기간 이상 수업을 들었던 경우 TOPIK 3급의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하다.

|       | 배우고 싶다     | 특별한 생각이 없다 | 안 배우고 싶다 |
|-------|------------|------------|----------|
| 총 31명 | 22명(71.0%) | 6명(19.4%)  | 3명(9.7%) |

앞으로 한국문화 수업을 듣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습니까?

|       | 전통문화      | 역사문화      | 예술문화      | 생활문화       |
|-------|-----------|-----------|-----------|------------|
| 총 31명 | 4명(12.9%) | 6명(19.4%) | 7명(22.6%) | 14명(45.2%) |

유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유학을 하면서 부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가 87.1%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한 사람도 없어 0%,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12.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유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 대해 배운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활문화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역사문화 22.6%, 예술문화 16.1%, 전통문화 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한국의 문화 수업 영역 선호도 조사에서 생활문화>예술문화>역사문화>전통문화의 순서로 나타나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부산이라는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자 선호도 순서에서 역사문화를 예술문화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부산과 부산 사람에 대한 이해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19.4%, 부산에 대한 지식 습득이 12.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유학생들이 부산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거주 지역인 부산과 부산 사람들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학을 하면서 부산에 대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       | 있다         | 모르겠다      | 없다     |
|-------|------------|-----------|--------|
| 총 31명 | 27명(87.1%) | 4명(12.9%) | 0명(0%) |

부산에 대해 배운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습니까?

|       | 전통문화     | 역사문화      | 예술문화      | 생활문화       |
|-------|----------|-----------|-----------|------------|
| 총 31명 | 3명(9.7%) | 7명(22.6%) | 5명(16.1%) | 16명(51.6%) |

부산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부산에 대한 지식 습득 | 부산과 부산 사람에 대한 이해 | 의사소통 능력 신장 |
|-------|--------------|------------------|------------|
| 총 31명 | 4명(12.9%)    | 21명(67.7%)       | 6명(19.4%)  |

문화에 대해 배운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체험이나 현장답사 48.4%, 시청각자료를 사용한 수업 45.2%, 교재 중심의 수업 6.5%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재 중심의 수업보다는 체험이나 현장답사, 시청각자료를 사용한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에 대해 배운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싶습니까?

|       | 교재 중심의 수업 | 시청각자료를 사용한 수업 | 체험이나 현장답사  |
|-------|-----------|---------------|------------|
| 총 31명 | 2명(6.5%)  | 14명(45.2%)    | 15명(48.4%) |

이러한 조사를 통해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와 지역문화의 경우 모두 현재의 생활문화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지만, 예술문화와 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문화의 경우는 역사문화보다 예술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하지만, 지역문화의 경우에는 역사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예술문화와 전통문화에 있어 한국문화와 지역문화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학생들이 부산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거주 지역인 부산과 부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2. 지역사를 포함한 역사문화 교육의 목표와 유의점

어떤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사회의 문화를 들여다보게 된다. 문화란 특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 시간, 사회 구조 등과 관계 맺으며 형성해온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문화를 “지식, 믿음, 예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라고 한 타일러의 정의 역시 이러한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사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절로 문화가 학습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들의 경우는 학습을 통해 문화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 사회의 변화, 즉 역사 역시 그 사회의 문화에 포함된다. 한 사회의 역사는 그것 자체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 신념 그리고 다양한 생활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역사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이해하고, 문화 속의 역사라는 의미로서 역사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의 역사문화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거나 발현되는 문화의 한 형태로서의 지역의 역사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교육의 한 분야로서 역사문화 교육을 다루는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역사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는 입장은 강승혜 외(2010), 조향록(2010), 윤여탁(2013), 진대연(2015, 2016) 등과 같이 한국문화 교육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룬 연구에서 주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sup>

한국어교육에서의 역사문화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역사문화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역사문화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토대로 언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대연, 정형근(2018:288)은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한국의 역사문화 지식을 이해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활용 할 수 있다. 둘째 현대 한국문화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 시대, 인물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문화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한다. 셋째, 다양한 역사문화 자료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한국과 자국의 역사문화를 비교하여 각각의 특수성과 세계 문화의 보편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시간적-공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것과 다른 삶의 방식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이 한국이란 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발현되는 역사문화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 역시 지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의 목표 역시 지역의 역사문화 지식을 이해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 시대, 인물을 이해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 다양한 역사문화 자료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적-공간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는 다른 삶의 방식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 6) 역사문화의 개념은 역사와 문화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의의 목적이 역사문화의 개념과 영역을 규정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진대연(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공간적으로 지역과 국가(한국)는 규모에 따른 차이, 즉 지역이 국가의 하위 단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 내용과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역사문화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는 지역별로 유사 점도 있지만 차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문화를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와 출신 지역의 역사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2.3. 지역 관련 자료의 선정

한국의 역사문화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하여 교육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지역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지역 자료란, 지역과 관련하여 생산된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기로 한다.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하여 교육하기 위한 지역 자료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역사문화적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적 상황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한국의 역사문화적 상황은 한국인의 사고 방식, 가치관 등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문화적 상황은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균질적이지 않다. 전체적인 역사문화적 상황은 공유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양 측면의 역사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선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 전쟁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

이다. 이 사건을 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 교육에서 다룰 때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부산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국가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역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한국 전쟁에 대한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과 분단, 이산가족 등의 내용을 다루겠지만, 부산 지역의 역사문화를 다룰 때는 이외에도 지역 차원에서 피난민의 수용과 정착과정, 새로운 문화와 마을의 형성 등 한국 전쟁 당시 부산 지역만이 경험했던 것들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사건이라도 지역 차원에서 다룰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때와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에서는,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문화 자료의 선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어휘와 문법이 쉽고 간결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아무리 학습자들이 고급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자료에 사용된 어휘와 문법의 수준이 높고, 특히 학문적 개념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의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나 문법 요소로 풀어낸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과거의 역사문화적 사건을 확장하여 현재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현시대적 상황에서만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나 현재까지 한국이나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역사문화적 사건을 다룬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유학생들이 역사문화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역사문화 교육의 목표는 과거의 지식을 알고

기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이해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다. 한편 의사소통 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여기-나’를 출발점으로 교육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진대연 2015:235). 따라서 유학생들이 보게 되는 현재의 한국과 지역의 모습을 역사문화 교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자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를 문화 교육의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현재의 한국문화는 모두 역사적 산물이지만 이것들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들로 존재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역사문화의 학습을 통해 생활문화나 예술문화, 가치문화 같은 다른 문화영역으로까지의 학습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문화 교육 요소들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3. 지역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 수업 방안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역사문화 교육에서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할 때는 단순히 한국사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식습득의 차원을 넘어 학습자 스스로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문화 이해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내용중심의 교육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역사문화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자료를 활용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의 기본

수업모형과 15주의 교수계획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현장 체험 후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지역 자료 선정 조건을 기준으로 근대 이후 한국과 부산의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동화작품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역사문화 수업의 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분석에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읽기 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학습과 현장체험 학습을 연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3.1. 수업 모형

2장에서 제시한 역사문화 수업 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분석에서, 학습자들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읽기 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학습과 현장체험 학습을 연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체험을 포함한 역사문화 수업은 ‘현장체험 전, 현장체험, 현장체험 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자료를 활용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 수업 역시 현장체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면 크게 보아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업 모형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이 모형에서는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하여 학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험 전 활동에서 먼저 한국과 지역 각각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장체험 후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문화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고, 읽기·쓰기·말하기의 통합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7) 이 글에서는 김용현·이기영(2012)의 문화체험을 통한 읽기 수업모형을,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에 맞도록 새롭게 변형시켜 사용하기로 한다.

<표1> 지역 자료를 활용한 한국과 지역 역사문화 수업 모형

| 단계             | 내용                     |
|----------------|------------------------|
| 역사문화 현장체험 전 활동 |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
|                | 한국의 역사문화 이해            |
|                | 지역의 역사문화 이해            |
| 역사문화 현장체험 활동   | 현장체험                   |
| 역사문화 현장체험 후 활동 | 상호문화 이해와 의사소통 교육       |

### 3.2. 교수 계획

한국어교육으로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 수업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개설 될 경우, 이것은 교양과목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양과목은 매주 3시간, 15주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sup>8)</sup> 그런데 현장체험 학습의 경우는 3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그런 이유로 매 주제마다 현장체험 학습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현장체험 학습이 어려운 경우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체험 학습을 할 경우 교사는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실제 현장체험 학습을 할 때도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주말을 이용하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학 교양과목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5주의 간단한 강의 계획을 구성해 보았다.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강

8) 학교에 따라 2시간의 교양과목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학습량 등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3시간으로 운영되는 교양과목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의 주제는 한국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그와 연계할 지역의 장소를 배치하였다. 수업에서 활용할 지역 자료는 지역의 장소와 관련된 교재,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사진, 영상 자료, 그리고 현장체험 할 수 있는 지역의 장소 등이 포함된다.

<표2> 한국과 부산의 역사문화 15주 계획

| 주   | 강의 주제                               |                   |
|-----|-------------------------------------|-------------------|
|     | 한국의 역사문화                            | 지역의 역사문화(관련 장소)   |
| 1주  | -한국 역사문화와 지역 역사 문화의 관계<br>-선사시대와 가야 | 영도와 동삼동 고분        |
| 2주  |                                     |                   |
| 3주  | 통일신라                                | 해운대               |
| 4주  |                                     |                   |
| 5주  | 조선시대                                | 동래, 동래산성, 영도      |
| 6주  |                                     |                   |
| 7주  | 중간고사                                |                   |
| 8주  | 조선시대                                | 왜관, 현충사           |
| 9주  |                                     |                   |
| 10주 |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 아미동과 산동네, 영도 국제시장 |
| 11주 |                                     |                   |
| 12주 |                                     |                   |
| 13주 |                                     |                   |
| 14주 | 기말고사                                |                   |
| 15주 |                                     |                   |

15주 수업 계획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역사문화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룰 경우, 활용될 수 있는 지역 자료는 한국의 역사문화와 부산의 역사문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또한 이 수업에서는 현장체험과 연계한 수업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현장체험 학습을 포함한 위의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주별로 수업 내용과 필요한 자료들을 구성해 보았다.

<표3>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수업 내용과 자료계획

| 주   | 단계          | 수업 내용                                               | 자료                                                                        |
|-----|-------------|-----------------------------------------------------|---------------------------------------------------------------------------|
| 10주 | 역사문화 현장체험전  | 한국과 부산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br>일제 강점기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 아미동 소개 사진, 인터넷 자료<br>부산 아미동 배경의 동화<br>일제강점기에 관한 한국사 교재 및 영상자료 「지식채널e」 영상. |
| 11주 |             | 한국전쟁과 분단의 한국의 역사문화 이해                               | 한국전쟁 관련 한국사 교재, 영상자료, 「지식채널e」의 영상                                         |
| 12주 |             | 아미동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 부산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 아미동을 소개한 읽기 자료, 인터넷 자료<br>산동네 관련 영상 자료<br>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 13주 | 역사문화 현장체험   | 아미동 현장체험을 통해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하여 이해                  | 아미동 현장체험                                                                  |
| 14주 | 역사문화 현장체험 후 | 아미동 역사문화 체험을 동화내용과 연계하여 이해하기<br>상호문화 이해하기           | 부산 아미동을 배경으로 한 동화                                                         |

### 3.3. 체험 후 활동 수업 방안

다음에서는 수업 방안의 실제로서 역사문화 현장체험 후 활동을 수업으로 구성해 보았다. 역사문화 현장체험 후 활동에서는 한국과 부산의 역사문화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동화를 읽기 자료로 활용한다. 동화 읽기를 통해 먼저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선행 학습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의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과 부산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한국과 부산의 역사문화를 자신의 나라의 역

사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상호문화 이해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3.3.1. 읽기 자료

이 수업에서는 지역의 장소를 배경으로 그 지역의 역사문화를 담아낸 동화를 읽기 자료로 활용한다. 역사문화 수업은 언어적 측면과 함께 역사문화라는 내용을 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급 학습자들이라 해도 어려운 어휘나 문법 요소가 적은 동화자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딱딱하고 어려운 교재보다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역사문화교육의 학습내용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포함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산의 역사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동화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를 읽기 자료로 선정하였다.

#### <읽기자료 1>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혼자 살았어. 그런데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곤 했지.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 같았거든. 오늘도 꼭 그런 기분이었어. 우당탕탕 아이쿠! 할아버지가 넘어졌어. 정신을 잃었지. “죽었나?” 낮은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눈을 떴어. “아이고, 머리야. 당신 누구요?” “오! 내가 보이는구나? 야호! 성공이다.” 일본 옷을 입은 영감이 좋아서 폴짝폴짝 뛰더니 벽을 스르르 통과해 집으로 들어갔어. 귀, 귀, 귀신이다! “이, 이놈의 귀신, 어딜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할아버지가 덜덜덜 떨면서 소리쳤어. “나는 줄곧 이 집에 있었는걸. 여기가 내 무덤이라고!” 귀신은 다짜고짜 신문을 가리켰어. “이것 좀 읽어 봐!” 일본 사람들이 조상의 유골을 찾으려고 우리 마을에 왔다. 후손들에게 내 비석이 여기 있다고 얼른 알려야 해. 그럼 내 유골도 고향으로 옮겨주겠지?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당신 비석이 어디에 있는데?” “따라와 봐.” 귀신이 흥흥흥 웃으며 앞장섰어. “이런... 내 비석이 아니잖아! 죽은 날짜

가 달라.” 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라니? 귀신이 자기 비석도 몰라?”

“나는 100년도 넘게 잠들어 있었어.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나 보니 내 무덤 위에 영감이 집을 지었대군. 다행히 비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갑자기 할아버지 팔을 덥석 붙잡았어.

“내 비석을 좀 찾아 줘. 그럼 은이 있는 곳을 알려 줄게.”

“은이라고?”

“죽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 두었지. 엄청 많아!”

할아버지는 귀가 솔깃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그 옛날 비석을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이야? 난 못 해.”

귀신은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녔어.

“내 비석 좀 찾아 줘!” “비가 새잖아. 은이 있으면 지붕도 고칠 수 있어.”

“집 안에 화장실도 만들자!”

“알았어 알았다고! 비석만 찾으면 내 눈 앞에서 사라져야 해!”

“야호! 신난다!”

사실 비석이라면 이 마을 어디에서든 볼 수가 있어. 옛날 이곳은 일본 사람들의 공동묘지였거든. 귀신과 할아버지는 마을을 살살이 뒤져 보기로 했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은이 아니라 금을 준다고 해도 더는 못 찾겠다.”

할아버지 말에 귀신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

“그런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왔어?” 할아버지가 물었다.

귀신은 옛날 일이 떠오르는지 눈알을 빙글빙글 굴렸어.

“나는 대마도에서 버섯을 캐며 살았어. 가난해서 가족이 늘 굶주렸지. 그래서 돈을 벌려고 조선에 온 거야. 부산에는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거든. 그곳에서 나는 두부를 팔았어. 장사도 잘 되었고 조선 사람들과도 잘 지냈지. 하지만 날마다 가족이 보고 싶었어. 하루 빨리 돈을 모아 고향으로 가려고 했지. 그런데 그만 병이 난 거야. 난 영영 돌아가지 못했어.”

“영감은 어찌다가 내 무덤 위에 집을 짓게 되었어?” 귀신이 물었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내가 열다섯 살 때 전쟁이 났어. 아버지는 장남인 나를 먼저 피신시켰지. 그렇게 온 곳이 부산이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어. 하지만 내 고향 연백은 북한 땅이 되어 버렸지.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 부산은 피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 오갈 데 없던 나는 공동묘지에 살게 되었지. 꺼림칙하고 죽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고향과 헤어진 가족이 너무 그리워. 곧 따라가겠다며 내 등을 떠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기만 해.”

“우리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내일은 더 구석구석 비석을 찾아보자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영감, 그게 정말이야? 야호! 신난다.” 귀신이 방 안을 푹썩푹썩 뛰어다니며 말했다.

“내일은 같이 비석도 찾고 은도 찾아보자.”

“그거 참,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이네.”

할아버지도 허허 웃었어.

### 3.3.2. 수업 방안

체험 후 활동은 선행 학습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읽기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에 대해 사고를 확장하고 이를 말하기, 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수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넓게 보아 읽기 수업 모형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읽기 교육은 ‘읽기 전-읽기-읽기 후’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수업은 동화 자료 읽기를 중심으로 읽기 전 활동과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동화의 배경이 되는 부산 아미동의 영상을 보면서, 현장체험 학습을 포함하여 앞서 진행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에서 이해한 내용을 되새겨 봄으로써 읽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읽기 후 활동에서는 읽기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말하기, 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수업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수업 절차

|                                                                                                                                                                                                  |
|--------------------------------------------------------------------------------------------------------------------------------------------------------------------------------------------------|
| 읽기 전 활동                                                                                                                                                                                          |
| 아미동 동영상을 보여주고, 한국과 부산의 역사문화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기                                                                                                                                                          |
| ↓                                                                                                                                                                                                |
| 읽기 활동                                                                                                                                                                                            |
| 동화 본문 읽기, 새 어휘 이해하기, 내용 이해하기                                                                                                                                                                     |
| ↓                                                                                                                                                                                                |
| 읽기 후 활동                                                                                                                                                                                          |
| 동화 내용과 한국, 부산의 역사문화를 관련지어 이야기하기<br>아미동과 유사한 부산의 다른 지역을 찾아보기<br>자기 나라의 독특한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기<br>고향에 대해 그리움을 느낀 경험을 글로 써 보기<br>동화의 결말 고쳐 써보기<br>동화를 바탕으로 각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하기 |

다음에서는 읽기 후 활동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읽기 후 활동에서는 읽기 활동을 통해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게 한 후, 학습자들이 텍스트 밖의 실제 세계와 동화 내용을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확장시키고 역사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읽기 후 활동에서는 유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말하기, 쓰기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다음에서는 읽기 후 활동에서 다루어질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말하기 쓰기 활동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 학습 목표

- ① 동화 내용과 한국, 부산의 역사문화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② 자기 나라의 역사문화와 관련지어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 ③ 다른 나라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 ④ 역사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표5> 읽기 후 활동

| 학습목표                                | 활동                                                                                                                                                                                                                                                                 | 언어<br>기능 |
|-------------------------------------|--------------------------------------------------------------------------------------------------------------------------------------------------------------------------------------------------------------------------------------------------------------------|----------|
| 동화 내용과 한국, 부산의 역사문화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 -동화 속에서 부산 아미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이야기해보자.<br>-동화 속 일본 귀신이 부산 아미동에 와서 살게 된 이유를 한국의 역사문화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br>-동화 속 할아버지가 부산 아미동에 와서 살게 된 이유를 한국의 역사문화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br>-아미동 마을이 만들어진 배경을 부산의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자.<br>-부산의 마을 중에 아미동 같은 산동네가 더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산동네가 생긴 이유를 알아보자. | 읽기-말하기   |
| 자기 나라의 역사문화와 관련                     | -동화 속 배경인 부산 아미동 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br>-자기 나라에도 독특한 마을이 있는지 찾아보고 마을                                                                                                                                                                                               | 읽기-말하기   |

|                                                           |                                                                                                                                                                              |                   |
|-----------------------------------------------------------|------------------------------------------------------------------------------------------------------------------------------------------------------------------------------|-------------------|
| 지어 비슷<br>한 점과 차<br>이점을 말<br>할 수 있다.                       | 의 역사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br>-두 곳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
| 다른 나라<br>의 역사문<br>화를 이해<br>하고 존중<br>할 수 있다.               | -동화 속 인물들처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경협<br>을 글로 써보자.<br>-동화 속 두 인물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유와 두 나<br>라의 역사문화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br>-자신의 생각대로 동화의 결말을 고쳐 써보자.                                          | 읽기-말<br>하기-쓰<br>기 |
| 역사문화에<br>대한 자신<br>의 생각이<br>나 느낌을<br>말과 글로<br>표현할 수<br>있다. | -한국사회나 지역사회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br>에 대해 이야기해보자.<br>-최근 들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앞<br>세워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동화를<br>바탕으로 각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과 바람직한 관계를<br>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해 보자. | 읽기-말<br>하기        |

#### 4. 맺음말

한류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유학생들은 입학 후 4년 이상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 대학 유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연구나 교육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관련 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하여 교육하면서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한국의 문화와 지역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았다. 특히 지역문화의 경우 생활문화 다음으로 역사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배우고 싶은 이유로는 지역과 지역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다. 또 문화를 배우는 방법으로는 체험이나 현장답사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 글에서는 부산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부산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수모형을 제시하고, 15주의 교수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체험 후 활동에서는 부산의 아미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동화를 활용하여 교육 방안의 예를 제시해 보았다. 읽기 전, 읽기, 읽기 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동화 내용을 한국 및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읽기 후 활동에서는 한국과 부산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자기 나라의 역사문화와 비교하여 이해함으로써 상호문화 이해능력을 높이고 의사소통 능력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을 통합하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온다. 하지만 아직 대학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목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학생들이 교육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다양한 교과목 개발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소영(2016),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역사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5- 1, 한국문예창작학회, 267-292.
- 강승혜·김성희·박성태·임형재·최주열·황인교(2010),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 김용현, 이기영(2012), 「문화 체험을 통한 읽기,쓰기 통합 교육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3-331.
- 우창현(2013),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제주 방언 상대 높임 표현과 양태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5, 우리말학회, 269-287.
- 윤여탁(2013),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 장미영(200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체감형 한국어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1-254.
- 전은주(2013), 「한국어교육과 로컬리티」 『한국언어문화학』 10-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53-181.
- 조항록(2010),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 한국문화사.
- 조혜화, 조재형(2015), 「한국어교육에서 지역어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 『어문논집』 62, 중앙어문학회, 685-721.
- 진대연(2015), 「한국어교육 문화 개선을 위한 역사 문화 교육과정 시론」 『교육문화연구』 21-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41-177.
- 진대연(2016), 「한국어교육에서 역사문화 교수 설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23-252.
- 진대연, 정형근(2018), 「한국어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8년 추계(제2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85-299.
- 차윤정(201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산 지역 방언 의문형 어미 교육방안- ‘-가/-나’, ‘-고/-노’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3, 우리말학회, 313-338.
- 차철욱(2009), 「지방성 연구의 이론적 검토」 『인문과학연구』 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5-222.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8), 『2018년도 출입국 외국인 통계연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68/subview.do>

자료

이영아(2017),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꿈교출판사.

차윤정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051-510-7426

greencha@pusan.ac.kr.

접수 일자: 2019년 9월 20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19년 10월 3일 ~ 2019년 10월 1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10월 19일

<Abstract>

Teaching Historical Culture Using Local Resourc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Cha Yun-Jung(Pusan Univ.)

In this paper, based on the survey of international stud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ethods of education in history and culture in Korea and the region using regional data. For this purpose, the teaching model, 15-week teaching plan,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War class were presented for the educ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and Korea. In the educational plan presented after the experience, the fairy tale set in the Ami-dong area of Busan was used as the material. Pre-reading, reading and post-reading activities helped learners understand fairy tales in relation to Korean and local historical culture. Particularly, in the post-reading activities, students were able to understand Korean and Busan's historical cultures and compare them with their own cultures to enhance their intercultural understanding. In addition, through the educational plan that integrates historical and cultural education and language education, communication skills can be enhanced.

\*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Korea, Local, History and Culture, Teaching Method